

다시 열린 관중석...팬·선수 함께 거두는 '유종의 미'



지난 8월4일 오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펼쳐진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 야구팬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가운데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야구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KIA 챔피언, 20일 NC전부터 개방
LG·삼성·KT·두산과 잔여경기

관중석이 다시 열렸다. 시즌 막바지에 돌입한 KIA 타이거즈와 광주 FC선수들도 팬들과 다시 호흡을 맞춘다. 11일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면서 야구·축구장도 재개장됐다. 가장 먼저 12일 고양종합운동장에 팬들이 입장했다. 이날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의 친선경

축구

광주 FC, 25일 상주와 홈 폐막전
전용구장서 치른 5경기 3무 2패
첫 승 향한 시즌 마지막 도전

기 2차전이 열리면서 '직판'이 이뤄졌다. 경기장을 찾은 2075명은 밴투호가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아우' 올림픽 대표팀을 상대로 3-0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지켜봤다. 13일에는 KBO리그 관중석이 열렸다. KIA 타이거즈의 안방인 챔피언스필드는 이번에도 가장 늦게 팬들을 맞는다.

앞서 지난 7월 26일 개막 후 처음 KBO리그 관중 입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광주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챔피언스필드 관중 입장이 미뤄졌다. 그리고 KIA는 10개 구단 중 가장 늦은 8월 4일 홈팬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는 못했다. 4일 LG전부터 16일 SK전까지 8경기를 치른 뒤 전국적인 확산세때문에 광주시가 코로나19 선제 대응에 나서면서 챔피언스필드도 다시 문을 닫았다. KIA는 13일 창원 원정에 이어 16일부터는 잠실로 가 LG를 상대한다. 원정 6연전 일정 탓에 KIA는 잔여경기 일정이 시작되는 20일에 홈팬들과 함께하게 된다. KIA는 20·21일 NC전 포함 안방에서 8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23일 LG, 24·25일 삼성, 27·28일 KT와의 홈경기에 이어 29일 두산을 상대로 2020시즌 홈 최종전을 치른다. 30일에는 사직으로 이동해 롯데와 올 시즌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K리그에서는 16일 예정된 K리그 25라운드 강원FC와 인천유나이티드의 경기가 관중 입장 재개 첫 무대가 된다. K리그1의 광주FC는 18일 오후 4시 30분 '전주성'에서 전북현대의 팬들과도 싸워야 한다. 3라운드 일정만 남겨두고 있는 광주는 25일 26라운드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후 2시 광주전용구장에서 상주상무와의 홈 최종전이 팬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광주는 7월 25일 수원삼성과의 13라운드 경기를 통해서 '축구 전용구장 시대'의 막을 열었다.

코로나19로 '집들이'를 하지 못했던 광주는 16라운드 강원FC전에서 처음 팬들과 함께 뛰었다. 하지만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한 경기만 치르고 다시 새 안방을 달아야 했다. 홈폐막전은 많은 '동기부여'가 담겨 있는 경기다. 광주는 전용구장 개장 이후 치른 5경기에서 승점이 3무 2패만 기록하고 있다. 25일 상주전은 전용구장 첫 승에 도전할 수 있는 올 시즌 마지막 기회다. 또한 K리그1으로 돌아온 올 시즌 유일하게 상주에만 2패를 기록, 승점을 더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팬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자리인 만큼 광주는 '승리'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생겼다. KIA와 광주가 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2020시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응원 영상 보내고 선물 받자

25일 상주 상무와 홈폐막전, 전광판 통해 소개

광주FC가 응원 영상 메시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광주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상주 상무와 K리그 1 26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올 시즌 광주전용구장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경기다. 홈폐막전을 앞두고 광주는 팬들의 영상메시지를 받는다. 광주는 상주와 경기가 끝난 뒤 팬들이 보내준 영상을 전광판을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올 시즌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을 격려하고 창단 첫 파이널A 진출패를 축하하겠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팬들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으로 역사적인 홈폐막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광주는 팬들의 영상(20초 기준)을 18일 자정까

지 신청서와 함께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신청서는 구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광주는 총 10명의 영상 주인공을 선정해 선수단 사인 유니폼(2명), 니트 머플러(3명), 옥스퍼드 블록(5명) 등을 선물한다. 주장은 "시즌 내내 열렬한 응원을 보내준 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었다. 반드시 승리로 보답해 전용구장 첫 승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는 상주와의 홈폐막전에서 팬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결정한 '창단 10주년' 유니폼을 착용해, 팬들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최지만은 쿵푸팬더?” 호수비에 현지 열광



탬파베이 레이스의 1루수 최지만이 13일 오전(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펫코파크에서 열린 MLB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 2차전 8회초 처리하기 어려운 송구를 잡아내 휴스턴 에스트로스의 알렉스 브레그먼을 아웃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스포츠로 'K리거' 변신

FIFA 인증 국내 유일 대회
25일까지 'eK리그 2020' 참가 신청
22개 팀 대표로 참가 우승 도전

e스포츠를 통해 'K리거'로 변신할 기회가 마련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한국e스포츠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아프리카TV가 주관하는 'eK리그 2020' 참가 신청이 13일 시작됐다. 참가자들은 K리그 22개 팀을 대표해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e스포츠 대회는 국내 프로스포츠 종목 중 최초다. 우승팀에게는 10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아시아 대회인 'EA 챔피언스 컵(EACC)'의 한국 대표 선발전 오프라인 예선 진출권도 주어진다. 2등 500만원, 3등 200만원 등 대회 총상금은 1700만원이다. 또 22개 구단의 대표로 선발된 팀은 해당 구단의

공식 e스포츠 대표팀으로 위촉된다. 유니폼과 하이퍼엑스 사의 게이밍 장비, 향후 K리그의 각종 행사 초대권 등도 받는다. 대회는 예선과 조별리그, 토너먼트를 거쳐 우승 팀을 가리게 된다. 3인이 한 조를 구성, K리그 각 구단 중 하나를 선택해 대회에 참가하는 방식이다. 같은 구단을 선택한 참가자들이 예선을 통해 K리그 22개 구단 대표로 선발된다. 각 구단을 대표로 선발된 22개 팀은 조별리그로 본선을 치른 뒤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에 도전한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구단 대표 선발전과 조별리그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8강부터 결승전까지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인 '아프리카 프리업 스튜디오'에서 펼쳐진다. 대회는 아프리카TV에서 독점으로 생중계한다. 참가신청은 25일까지 신청 링크(https://bit.ly/2G4FCg3)를 통해 이뤄지며, 만 16세 이상 3인 1팀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세한 대회 일정은 넥슨의 피파온라인4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탬파베이-휴스턴 챔피언십 2차전
5·8회초 유연한 캐치로 위기 막아
트레이드 마크 자리매김...시리즈 2-0

한국인 타자로는 처음으로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챔피언십시리즈에 진출한 최지만(탬파베이 레이스)은 올해 포스트시즌에서 '가장 재밌는 선수'로 꼽힌다.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에서는 메이저리그 최고 몸값 투수 게릿 홀(뉴욕 양키스)을 홈런으로 무너뜨렸고,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

즈(ALCS) 상대 휴스턴 에스트로스를 향해서는 휴지통 두들기며 '사인 훔치기' 도발했다. 더그아웃에서는 늘 웃음기 가득한 표정으로 응원단장 역할을 한다. 13일 열린 탬파베이와 휴스턴의 ALCS 2차전에서는 최지만의 수비가 화제에 올랐다. 탬파베이의 4-2 승리로 끝난 이 경기는 수비가 승부를 갈랐다. 1루수인 최지만은 5회초와 8회초 3루수 조이 웬들과 환상적인 호흡을 맞췄다. 웬들은 3루수와 유격수 사이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타구를 잡아내 1루로 던졌고, 최지만은 매번 다리를 쭉 뻗어 호수비를 완성했다.

최지만은 지난 10일 양키스와의 ALDS 5차전에서도 1회초 두 번의 호수비로 승리를 뒷받침했다. 양다리를 쭉 뻗어 포구하는 수비 모습은 최지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최지만은 한 다리로는 베이스를 밟으면서 다른 다리를 최대한 밖으로 뻗어 옆으로 빛나갈 수 있는 공도 안전하게 잡아낸다. 최지만의 호수비가 나올 때마다 현지 팬들은 트위터 등에서 찬사를 쏟아냈다. 또 최지만이 다리를 쭉 뻗는 모습과 닮은 애니메이션 영화의 한 장면을 담은 밈(Meme-인터넷에서 유행어와 행동 따위를 모방하여 만든 사진이나 영상)도 확산하고 있다. /연합뉴스